민생회복·통합·북핵·부동산…해법찾기 고심

5년 임기 닻올린 윤석열 정부 과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효율적 지원 168석 '거야'와 소통 등도 급선무 꽉 막힌 대일 관계 개선 핵심 과제

10일, 5년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집권 초부터 풀어야 할 막중한 과제들이 산적해있 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토대로 한 시대와 민심과의 소통, 야당과의 협치 등이 절실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 망된다.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하고 있는 시대적 과 제들을 조명해본다.

◇민생 회복=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포스트 코로 나 시대에 맞춰 출범하게 됐다. 3년에 이르는 코로 나19 장기화로 소득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이 심해졌 다. 이를 조속히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. 이를 위해 서는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시급하 다.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에너지・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속 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.

부동산 문제는 새 정부에서도 언제든지 뇌관이 될 수 있다. 현재 시장에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주 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 부담 완화의 구체적인 방 안을 조속히 내놓으라는 요구가 비등해 있다.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일자리 문제도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가중하는 숙제 중 하나로 꼽힌다.

◇국민 통합=지난 대선에서 양분되다시피 했던 국민 여론의 통합은 첫손에 꼽히는 과제다. 윤 대통 령은 역대 최소 득표율 차(0.73%포인트)로 당선됐 다. 또 당선인 시절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0%대로 앞선 대통령 당선인들에 비해 낮았다. 정권심판론을 기반으로 당선됐으나, 자신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나머지 반쪽도 끌어안아야 한다. 집권 초기에

국민 통합의 기조를 제대로 다지지 못한다면 국정 장악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. 장·치관 인사 및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선에서 나타난 '호남 패싱' 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 는다는 지적이 나온다. 일방통행으로는 국정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다.

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168석의 '거야'로 강력한 입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도 필수 다.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반 대하면서 '반쪽 내각' 출범에 따른 국정 공백 우려 가 제기되고 있다. 윤 대통령은 전날 15개 부처 차 관 20명을 인선했지만 차관 체제로 장기간 국정을 운영할 순 없는 상황이다.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 은 국정 운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다.

◇한반도 평화 및 외교= 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 력 시위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정세 관리 는 새 정부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가 됐다. 북 한은 윤 대통령 취임을 사흘 앞둔 지난 7일에도 잠 수함발사탄도미사일(SLBM) 1발을 발사, 올해 들 어 15번째 공개 무력 시위를 벌였다. 약 5년 만에 7 차 핵실험을 조만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다. 윤 대통령이 이날 0시 군 통수권을 이양받으면 서 "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"고 말한 데 서도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.

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을 계기 로 국제 사회와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. 자칫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간 재임 5년간의 외교가 흔

오는 21일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위 협에 맞서 양국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한 편,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종군위안부 합의 문제로 수년간 꽉 막혔던 대일 관계 개선도 쉽지 않은 문제다. 특히, 한미 간 밀착을 견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중국과의 유 연한 관계 설정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.

/임동욱 선임기자 tuim@kwangju.co.kr



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.

〈국회사진기자단〉

김건희 여사 공식석상 첫 등장…문 대통령 내외에 90도 인사

윤 대통령과 첫 출근길 동행 시민들과 일일이 '주먹 악수'

김건희 여사가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과 함께 공식석상에 등장했다. 지난 3월 9일 윤 대 통령 당선 이후 첫 공개 행보다.

김 여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첫 출근길에 동 행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. 앞머리를 살짝 내린 단발 스타일이었다.

윤 대통령이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주민들과 '주먹 악수'를 나 누는 동안 김 여사는 뒤로 한걸음 물러서서 이를 지 켜봤다.

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앞둔 만큼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이었다.

김 여사는 두 손을 모으고 주민들에게 재차 5차 례 넘게 목례를 하며 화답했다.

김 여사는 현충원에 입장하면서도 윤 대통령 뒤 로 한 발짝 물러서서 걸었다. 이후에는 윤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순국선열에 묵념 및 분향을 했다

다소 긴장한 듯 웃음기 없는 표정이었다.

김 여사는 이후 현충원 귀빈실에서 '올 화이트' 패 션으로 환복했다. 허리에 큰 리본을 두른 흰색 원피 스에 5~6cm 높이로 보이는 흰색 구두 차림이었다.

김 여사는 이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앞 마당으로 향했다. 차량에 내려 김부겸 국무총리와 악수를 나눈 뒤 꽃다발을 전달한 남자아이와 사진 을 찍었다.

촬영 내내 남자아이와 볼을 밀착하고 어깨를 두 드리기도 했다.

이후 윤 대통령은 단상까지 이동하며 시민들과

악수하던 중 뒤를 따르던 김 여사를 향해 손짓했 다. 이에 김 여사도 나란히 서서 시민들과 악수를

김 여사는 쏟아지는 요청에 일일이 고개를 숙이 며 '주먹 악수'를 했다.

이어 단상 위로 이동해 윤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.

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먼 저 악수한 뒤 허리를 한껏 숙여 '90도 인사'를 했다. 이어 문 전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로 인사했다.

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90도로 인사하고, 취임식이 끝난 뒤에도 차량 앞까지 찾아가 배웅했 다. 잠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.

김 여사는 취임식 내내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리를 지켰다. 이어 차량을 타고 취임식장을 떠날 때까지 윤 대통령 곁을 지켰다.

윤 대통령, 1호 결재는 한덕수 총리 인준안

브옥앙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

/ 네 062)531-3530, H. 010-9229-3530

김부겸 총리 제청 장관 7명 임명

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일인 10일 추경 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7명 의 장관을 임명했다.

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여야 합의로 인사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들이다.

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 무실에서 국회로 송부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.

취임식 직후의 '1호 결재'였다. 윤석열 대통령 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회의 인준 표결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

첫 출근 직후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재부터 서두른 것은 그만큼 그에 대한 재신임 의지를 강 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.

윤 대통령은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

정부 장관,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, 이 종섭 국방부 장관, 한화진 환경부 장관, 이정식 고 용노동부 장관,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, 조 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공식 임명했다.

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 청을 받아 이들을 일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. 김 총리가 새 정부 인사에 협조한 모양새가 됐다.

앞서 정치권에선 김 총리가 추 부총리 임명 제 청만 하고 물러나면, 추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 서 나머지 장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 이 거론됐다.

윤 대통령은 이밖에 김대기 비서실장과 5수 석, 김성한 국가안보실장,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 통령실 정무직과 각 부처 차관에 대한 임명도 단 행했다.

윤 대통령은 오는 12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(추경)안을 처리할 전망이다.

제30-0949873호 특허청



